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10.26.

VOL.612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의 5개년 전략과 24시간 내 질병 탐지체계 구축 추진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의 5개년 전략과 24시간 내 질병 탐지체계 구축 추진 1

02 무역통상

영국, CE 마킹 의료기기 무기한 인정 확정 … 공급 안정 도모 5

중국, 바이오 기술수출 통제 개정안 공개 5

베트남제약협회-DKSH, 제약사 수출 역량 강화 양해각서 체결 5

산도스, EU에 중국산 원료의약품 반덤핑 조사 요청 … 페니실린 공장 위기 6

파키스탄, 의약품 수출 30.3% 감소 … 아프가니스탄 교역 차질 영향 6

미국 세관, 신규 소액 국제우편물 통관 신고 의무 시행 연기 6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라질 희귀질환 치료제 10년 독점 공급 계약 7

무바달라 바이오-일라이 릴리, GLP-1 현지 포장·물류 협력 7

사이달, 지부티에 의약품 첫 수출 … 수출 다변화 전략 이행 7

03 의료 인공지능

NIH 지원 연구팀, 수면 중 심전도 딥러닝 분석으로 심혈관 사건 위험 예측 8

NIH-바이오허브-DOE, 가상 생물학 이니셔티브 확대 … 18억 달러 투자 약정 8

BIDMC-구글, 환자 대면 AI 챗봇 'AMIE'의 일차의료 첫 실제 환경 연구서 안전성 확인 9

유럽심장학회, 심혈관 AI 네트워크 '체인' 출범 … 20개국 53개 기관 참여 9

영국 정부-MHRA, AI 의료기기 전주기 모니터링 권고 수용 … AI 에어락 3단계 착수 10

스위스, 제약·AI 융합으로 제약 인력의 진로가 AI 기업까지 확대 10

아포덱스, 중소 바이오제약사에 AI 신약 연구 서비스 무료 제공 11

미국 유타주, 의료 AI 규제샌드박스 확대 … 신규 파일럿·제3자 평가기관 도입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스탠퍼드의과대학 연구팀, 면역체계 갖춘 폐 오가노이드 개발 … 바이러스 면역반응 확인 12
ARPA-H, BIOGAMI 프로그램 6개 팀 선정 … 최대 1억 5,200만 달러 지원 12
MHRA, 악성 복수 치료제 '코르주니' 허가 … 배액 시술 간격 연장 13
온바구스, 암 악액질 환자 대상 비침습 미주신경 자극 기기 첫 임상시험 착수 13
글로벌 일회용 의료기기 시장, 2030년 1,448억 5,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14
미국 의료기기산업협회, CMS에 RAPID 보장 경로 적용 대상 확대 요구 14
NMPA,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 시행 공고 … 등록·신고 제품 변경 절차 규정 15
두바이 시청, AI 기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공개 15

05 의료서비스

닥투어스 헬스, 글로벌 의료서비스 비교·예약 플랫폼 확대 추진 … 200만 달러 투자 유치 16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국가 원격의료 서비스 '이산지바니' 누적 상담 5억 건 돌파 발표 16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 2025년 의료관광 수익 23% 증가 발표 17
필리핀 관광부, 의료·웰니스 관광 투자 유치에 나서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17
글로벌 사모펀드, 인도 병원 그룹에 투자 확대하며 중소도시 확장 지원 18
스웨덴 엔케어, 베트남 FV 병원과 파트너십 체결 … ERAS® 인증 추진 18
말레이시아 마이클리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지점 개설 19
중국, 중의학 국제협력 확대 … 2026 세계전통의학대회 베이징 개최 19

06 글로벌 행사

20

FOCUS 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의 5개년 전략과 24시간 내 질병 탐지체계 구축 추진

1 5개년 전략의 발표 경과와 핵심 내용

전략 발표 배경과 경과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6년 10월 12일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열린 '2026 세계보건정상회의(World Health Summit 2026)' 개막 세션에서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의 신규 5개년 전략(2026년~2030년)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1년 허브 설립 이후 5주년을 맞아 공개된 중장기 전략임
  * 2021년 독일 정부 지원으로 베를린에 설립된 WHO 산하 조직으로, 세계 각국의 신종 보건 위협 조기 탐지와 평가를 지원함
- WHO 사무총장은 허브가 2021년 설립 이후 5년 만에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WHO 회원국 160개국과 파트너 기관·네트워크 190개와 협력하여 △신종 감염병 위협 탐지 △병원체 염기서열 분석·식별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신규 전략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신종 보건 위협의 발생을 24시간 내 탐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허브가 기존 활동을 기반으로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됨

5개년 전략의 4대 전략 목표

- WHO는 신규 전략에서 ❶감시체계 강화(Stronger Surveillance Systems) ❷혁신을 통한 신속 탐지(Faster Detection through Innovation) ❸응용분석과 지식전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Better-Informed Decisions through Applied Analytics and Knowledge Translation) ❹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Trusted Digital Foundations)을 4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음
- 전략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 설정의 배경으로 △보건 위협 간 상호연계성 증가 △빠른 기술 변화 △국가별 감시 역량 격차의 지속을 들었으며, 이는 전략이 단순한 조직 운영 계획이 아니라 기술·역량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설정임을 보여줌
- WHO는 5대 추진 이니셔티브가 위 4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각 이니셔티브는 △감시체계 △공개출처 정보분석 △분석협력 △병원체 감시 △디지털 역량 중 한 영역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임
- 또한, 전략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 △부문·분야·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전략의 실현이 WHO 단독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음

| 5개년 전략의 발표 개요와 4대 전략 목표

구분	핵심 내용
발표 경과	2026년 10월 12일 2026 세계보건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발표, 허브 설립 5주년
허브 활동 현황	2021년 설립 이후 회원국 160개국, 파트너기관·네트워크 190개와 협력
목표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종 보건 위협 24시간 내 탐지·파악
4대 전략 목표	❶감시체계 강화 ❷혁신을 통한 신속 탐지 ❸응용분석과 지식전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❹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전제 조건	지속적 재원 투자, 신뢰 기반 파트너십, 부문·분야·국경 초월 협력

[자료] ❶WHO, ❷WHO

2 4대 전략 목표와 5대 추진 이니셔티브의 작동 구조

4대 전략 목표의 구체적 내용

- 전략 보고서는 △궁극적 지향점(2030년까지 신종 위협을 24시간 내 탐지·파악) △비전(위협이 위기로 번지지 않는 세상) △미션(모든 국가가 신속히 위협을 탐지·관리하도록 공중보건정보 역량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4대 전략 목표는 이 비전과 미션을 실행하는 축으로 설계됨

① 감시체계 강화: 위기 상황에서는 구축할 수 없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WHO는 각국 공중보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감시 역량의 △거버넌스 △역량 △숙련도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② 혁신을 통한 신속 탐지: △공개출처 △실험실 △유전체 정보를 일상적인 공중보건 업무 흐름에 통합하는 확장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을 지향하며, AI 기반 스캐닝(Scanning)과 저비용 유전체 분석 등 신기술이 필요한 국가에 실제로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

③ 응용분석과 지식전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위기 때마다 분석 역량을 새로 구축해온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며, 평시에도 유지되는 전문가 공동체와 즉시 활용 가능한 분석도구·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이 목표임

④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형식이 제각각이고 단절된 시스템에 흩어진 공중보건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공통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기관 간 신뢰와 거버넌스를 함께 강화하는 과제를 포함함

5대 이니셔티브의 이행 현황과 성과

① 공개출처 역학정보(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s, EIOS): 2025년 AI 기능을 강화한 2.0 버전을 출시하여 △자동 신호 탐지 △분석 △위험평가 역량을 높였으며, 현재 125개 이상의 회원국과 지역·국제기구 30곳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개출처 공중보건정보 공동체로 성장함

② 국제병원체감시네트워크(International Pathogen Surveillance Network, IPSN): 진단 혁신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생물정보학을 감시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통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체 감시 역량을 확충하고 있음

③ 협력체(Collaboratory): △모델링 △역학 △데이터과학 분야의 전문가 공동체를 연결해 공중보건 현안에 첨단 분석을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전문가 공동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④ 협력감시 이니셔티브(Collaborative Surveillance Initiative): 각국 공중보건기관 이니셔티브(National Public Health Agencies Initiative)*를 통해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각국의 공중보건기관이 신종 위협 감시·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마련하는 사업

⑤ 공중보건정보 디지털기반 이니셔티브(Digital Enablers for Public Health Intelligence Initiative): 선도적인 △기술기업 △공중보건기관 △연구기관을 한데 모아 향후 공중보건정보 체계를 뒷받침할 디지털·AI 역량을 발굴·개발·확산하는 작업을 이번 전략에서 신규로 추진함

| 4대 전략 목표와 5대 이니셔티브의 구성



[자료] WHO

3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의 운영 방식과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에 미치는 영향

허브의 역할 수행 방식

- 허브는 특정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①소집자(Convener) ②동원자(Mobilizer) ③촉매(Catalyst)로서 기존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정부 △공중보건기관 △학계 △기술기업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을 함

① 소집자(Convener): WHO의 지역·국가 사무소 네트워크와 협력센터를 활용해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들이 신뢰를 쌓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② 동원자(Mobilizer): △자금 △전문성 △파트너십을 공동 우선순위에 맞춰 조정해 제한된 자원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입되도록 지원함

③ 촉매(Catalyst): △연구자 △각국 정부 △현장 파트너를 연결해 우선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앞당기며, 유망한 혁신 기술을 식별하고 공통 접근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이 더 빠르게 공중보건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함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에 미치는 영향

- 2025년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체계로, 전략 보고서는 이를 공중보건정보 강화에 대한 국가 간 지속적 협력 공약이 반영된 사례로 제시함

  * 백신·치료제 등 보건의료제품의 공평한 접근과 병원체·정보 공유 원칙을 담은 국제 협정으로,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략 보고서는 공중보건정보 분야의 국제협력이 더 중요해진 배경으로 △세계 정치 지형의 변화 △각국 우선순위 조정 △재원 제약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일수록 공중보건정보가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라는 인식이 오히려 중요해진다고 설명함

-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2026년 1월 WHO에서 공식 탈퇴하고 정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재원이 줄어든 상황이 있으며, 전략 보고서가 재원 다각화와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이와 같은 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보건 위협 심화 △분쟁·취약 지역 주민의 불균형적 피해 △만성질환 부담 증가가 겹친 복합위기(Polycrisis)**를 공중보건정보 수요가 커지는 배경으로 제시하여 감염병 감시를 넘어 다양한 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감염병 발생 △분쟁 △자연재해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증폭되는 상황

|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의 역할과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



[자료] WHO

4 이행 과제와 향후 전망 및 한국 대응 방향

이행 과제와 제약 요인

- 전략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지속적 재원 투자는 2026년 1월 미국의 WHO 탈퇴로 재원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과제이며, 전략 보고서도 허브 단독의 역량만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국가·파트너의 자발적 기여 확대가 관건임
- 전략 보고서는 공중보건정보가 기관마다 다른 형식으로 생산되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다는 현재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16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에서 공통 표준과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 수준의 차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략 보고서는 2030년까지 24시간 내 신종 감염병 위협 탐지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중간 점검 지표나 연도별 이행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은 향후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 WHO는 2025년 EIOS 2.0 출시 이후 자동 신호 탐지 기능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으며, IPSN도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5대 이니셔티브의 활용 범위는 전략 기간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6년 7월 24일 허브와 400만 유로(한화 62억 6,852만 원) 이상 규모의 기여 협정을 체결하여 EIOS와 협력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재정 공백을 메우려는 지역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됨
- IPSN는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의 유전체 감시 역량 확충을 위해 400만 달러(한화 54억 3,6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전략 기간 중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이 이어질 전망임

한국 시사점과 대응 방향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4일~5일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를 방문하여 전 세계 공중보건정보 감시와 병원체 유전체 감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참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예측 네트워크 허브 시범 연구와 △시나리오 △데이터 △앙상블 허브(Ensemble Hub)*를 통합한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함
  * 여러 예측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인 앙상블(Ensemble)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 또한, 이러한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감염병 조기경보 체계 내에서 역할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IPSN 등 다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국형 예측 네트워크 허브의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점검 △IPSN 등 유전체 감시 분야의 참여 수준 구체화 △공중보건정보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AI 역량을 국제협력 의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WHO. 2025.06.17.;이데일리. 2026.03.06.;European Commission. 2026.07.27.;WHO. 2026.10.10.;WHO. 2026.10.12.

영국, CE 마킹 의료기기 무기한 인정 확정 … 공급 안정 도모

UK confirms indefinite recognition of CE-marked medical devices to secure stable supply

- 영국 정부가 10월 21일 CE 마킹을 받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Devices, IVD)의 공급 안정과 환자의 중단 없는 이용을 위해 제조사의 중복 승인 절차를 없애는 방식을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스(Wales) 지역 시장에서 무기한 인정하기로 확정함
-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CE 마킹 의료기기의 무기한 인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1,000건 이상의 응답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 승인 경로 없이 CE 마킹을 인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정부는 의회 승인을 전제로 2028년 6월 30일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으로, CE 마킹 의료기기의 무기한 인정은 입법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추는 시점이 달라질 전망임

[Traders Union, 2026.10.21.;British Healthcare Trades Association, 2026.10.22.]

중국, 바이오 기술 수출통제 개정안 공개

China proposes biotech export control revisions

-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가 바이오 기술 5종을 추가하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Catalogue of Technologies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Export)」 개정안을 10월 16일에 공개함
- 개정안은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 CGT) 및 소간섭RNA(Small Interfering RNA, siRNA)* 관련 기술 독자 공정 플랫폼(Proprietary Process Platform)을 해외 기관에 넘기는 소유권 이전과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변형 기술수출은 금지하고 신규 약물 표적 발굴 및 검증 기술수출을 제한함

  *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하는 작은 RNA 분자 기반 기술
- 한편,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바이오 라이선싱 거래까지 반도체·AI 시스템과 동일한 대외투자 심사(Outbound Investment Review)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올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국의 규제가 글로벌 제약업계의 중국 신약 후보물질 도입 환경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됨

[The Edge Malaysia, 2026.10.16.;Yicai Global, 2026.10.19.]

베트남제약협회-DKSH, 제약사 수출 역량 강화 양해각서 체결

Vietnam Pharmaceutical Companies Association-DKSH MOU to strengthen export readiness of Vietnamese pharmaceutical companies

- 베트남제약협회(Vietnam Pharmaceutical Companies Association, VNPCA)는 스위스 시장 확장 서비스(Market Expansion Services) 기업 DKSH와 베트남 제약사의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월 18일 밝힘
-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연방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Hanoi)에서 열렸으며, 양측은 ❶수출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 ❷적합 제품 및 목표 시장 파악 ❸해외 기업 및 유통사 연계 ❹수출 물류 및 공급망 역량 확대 모색에 협력하기로 함
- 베트남이 '국가 제약 산업 발전전략(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아래 의약품 수출액 10억 달러(한화 1조 3,590억 원) 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양해각서는 현지 제약사의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VNPCA의 실행 조치로 분석됨

[MarketScreener, 2026.10.21.;VNPCA, 2026.10.21.]

산도스, EU에 중국산 원료의약품 반덤핑 조사 요청 … 페니실린 공장 위기

Sandoz requests EU anti-dumping probe on Chinese APIs as penicillin plant faces crisis

-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Sandoz)가 중국 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아목시실린(Amoxicillin)*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반덤핑(Anti-Dumping)** 조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요청함

  * 페니실린계 항생제로 △편도염 △폐렴 △중이염 등 세균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 수출국 업체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는지 확인하는 절차

- 유럽연합(EU)의 페니실린(Penicillin) 및 유도체 원료의약품(APIs)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이 2019년 44%에서 2025년 86%로 상승한 가운데, 산도스는 유럽 내 마지막 페니실린 일관 생산 공장이 중국산 원료와의 경쟁으로 존립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힘

- 다만 반덤핑 조사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EU의 항생제 원료의약품(APIs) 공급망 보호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The Kathmandu Post, 2026.10.21.;Streamline, 2026.10.22.]

파키스탄, 의약품 수출 30.3% 감소 … 아프가니스탄 교역 차질 영향

Pakistan's pharmaceutical exports fall 30.3% as Afghanistan trade disruption weighs

- 파키스탄의 의약품 수출액 감소율이 2026 회계연도에는 30.3%, 2027 회계연도 1분기에는 25.5%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역 차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파키스탄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PBS)에 따르면 의약품 수출액은 2025 회계연도 4억 5,746만 달러(한화 6,216억 8,814만 원)에서 2026 회계연도 3억 1,901만 달러(한화 4,335억 3,459만 원)로 줄었고, 2027 회계연도 1분기 수출량은 2026 회계연도 1분기 2만 3,924톤에서 1만 6,410톤으로 31.4% 감소함

- 아프가니스탄이 2025 회계연도 파키스탄 의약품 수출액의 약 34.1%를 차지한 주요 시장이었던 만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교역 차질에 따른 손실이 큰 가운데, 파키스탄 기획개발부(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Special Initiatives) 장관이 관계 당국과 의약품 수출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Dawn, 2026.10.22.;BOL News, 2026.10.22.]

미국 세관, 신규 소액 국제우편물 통관 신고 의무 시행 연기

U.S. customs delays customs declaration requirement for small international mail shipments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해외 약국 처방약 수입의 접근성 우려를 낳은 소액 국제우편물 통관 신고 의무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2일에서 2027년 1월 20일로 연기한다고 10월 14일 발표함

- 소액 국제우편물 통관 신고 의무화를 둘러싸고 환자 단체와 업계가 개인 처방약 주문의 지연 및 수입 거부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의회 의원 71명이 처방약 관련 절차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처방약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번 조치로 처방약 가격 인상 시점이 2027년 1월 20일 이후로 밀렸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할 우편물에 전자 신고와 통관 보증(Customs Bond)을 요구하는 새 절차에서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포함된 해외 약국발 우편물의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Apple Valley News Now, 2026.10.18.;UPI, 2026.10.22.]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라질 희귀질환 치료제 10년 독점 공급 계약

Samsung Bioepis wins 10-year exclusive supply deal for rare disease biosimilar in Brazil

- 한국 제약사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가 브라질 공공의료시스템(Sistema Único de Saúde, SUS)에 2027년부터 10년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치료제 솔리리스(Soliris)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SB12를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면역계 보체의 이상 활성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는 희귀 혈액질환
** 면역계 보체의 이상 활성으로 소혈관에 혈전이 생겨 적혈구 파괴와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희귀질환

- 이번 계약은 브라질 정부가 2008년 도입한 '생산적 개발 파트너십(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PDP)***' 제도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현지 파트너에 완제품을 공급하면서 단계적으로 제조 기술을 이전할 계획임

*** 제조 기술을 이전하는 제약 기업에 SUS를 통한 정부 구매를 보장하며 자국 제약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 브라질 보건부가 PDP를 희귀질환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도 바이오시밀러 공급으로 재정 부담을 낮추고 제조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됨

[Drug Store News, 2026.10.20.;Pharma Manufacturing, 2026.10.22.]

무바달라 바이오-일라이 릴리, GLP-1 현지 포장·물류 협력

Mubadala Bio and Eli Lilly agree to localize GLP-1 packaging and logistics in Abu Dhabi

- 아랍에미리트(UAE) 생명과학 기업 무바달라 바이오(Mubadala Bio)가 10월 20일 아부다비 퓨처 헬스 서밋 2026(Abu Dhabi Future Health Summit 2026)에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협력 계약을 체결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계열 의약품의 포장 및 물류 활동을 아부다비 현지에서 수행하기로 함

- 협력은 아부다비 내 12만 5,000㎡ 규모 부지의 포장·창고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위탁생산 및 물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며, △기술 △품질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임

- UAE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2026년 4월 비만치료제 파운다요(Foundayo)를 승인한 데 이어 현지 포장·물류 협력까지 이뤄짐에 따라, 아부다비가 목표로 내세운 글로벌 생명과학 허브 구상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관측됨

[Abu Dhabi Media Office, 2026.10.20.;Gulf Daily News, 2026.10.21.]

사이달, 지부티에 의약품 첫 수출 … 수출 다변화 전략 이행

Saidal makes first drug export to Djibouti, carrying out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

- 알제리 제약사 사이달(Saidal)이 알제리 정부의 탄화수소(Hydrocarbon) 외 수출 다변화 전략과 제약산업부(Ministère de l'Industrie Pharmaceutique)의 아프리카 시장 내 의약품 보급 확대 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0월 21일 지부티가 발주한 대규모 주문의 첫 물량을 수출함

- 이번에 수출한 첫 물량에는 항생제 및 진통제를 비롯해 심혈관질환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가 포함되었으며, 사이달 대표는 최근 △모리타니 △탄자니아 △베냉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알제리산 의약품에 대한 주문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 사이달은 이번 수출이 자사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제약 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아프리카 시장 의약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새로운 전망을 제시함

[Algérie Eco, 2026.10.21.;Dzair Tube, 2026.10.22.]

01 NIH 지원 연구팀, 수면 중 심전도 딥러닝 분석으로 심혈관 사건 위험 예측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지원을 받은 미국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등 연구팀이 수면 중 기록한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분석해 심혈관 사건 위험 예측 가능성을 확인함

- 수면장애 진단의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중 기록되지만 거의 분석되지 않는 심전도(ECG)에 착안하였으며, 연구팀은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과 전체 사망의 10년 위험 예측 가능성을 검증함

* 심방의 전기 신호가 불규칙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의 위험을 높임

- 연구팀은 수면 검사의 단일 유도 심전도(Single-Lead ECG)**와 전문가가 표기한 수면 단계 데이터를 결합한 모델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환자 15,809명의 데이터로 파인튜닝(Fine-Tuning)***하고 △에모리대학교 병원(Emory University Hospital) 환자 9,810명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환자 12,576명의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함

** 전극 하나로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일반 진료에서 쓰는 12유도 심전도(12-Lead ECG)보다 간편함
***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특정 목적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시켜 성능을 맞추는 방법

- 딥러닝 모델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높았고 연령 등 기존 위험요인을 보정해도 △심방세동 △심부전 △전체 사망의 예측이 개선되었으나,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추가 최적화가 필요함

- 단일 유도 심전도와 수면 단계 정보를 결합한 딥러닝 분석이 기존 위험 예측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수면 검사에 통합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에 심혈관 질환 위험군을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될 전망임

[NIH, 2026.10.09.;Medical Xpress, 2026.10.09.]

02 NIH-바이오허브-DOE, 가상 생물학 이니셔티브 확대 … 18억 달러 투자 약정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 바이오허브(Biohub) 및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와 함께 AI 모델 학습용 생물학 데이터를 구축하는 가상 생물학 이니셔티브(Virtual Biology Initiative)를 확대하여, 총 18억 달러(한화 2조 4,46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함

- 이니셔티브는 2026년 4월 바이오허브의 5억 달러(한화 6,795억 원) 약정으로 출범했으며, ❶4억 달러(한화 5,436억 원)는 세포 내부를 관찰하는 초저온 전자 단층 촬영(Cryo-Electron Tomography)* 등 측정 기술에 ❷1억 달러(한화 1,359억 원)는 외부 연구에 투입됨

* 세포를 급속 냉동해 전자현미경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원자에 가까운 해상도의 3차원 구조로 재구성하는 영상 기술

- DOE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을 통해 5년간 5억 달러(한화 6,795억 원) 이상을 세포 연구에 투자하며, 산하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엑사스케일(Exascale)*** 슈퍼컴퓨팅 △X선·중성자 산란 장비 △극저온 전자현미경 △자율 실험실을 연구에 활용함

** DOE가 주도해 △국립연구소 △산업계 △학계의 역량을 결합하고 AI로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미국 범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
*** 초당 100경 회 이상의 연산을 수행하는 슈퍼컴퓨터 성능 수준

- NIH는 제네시스 미션의 일환인 '바이오 제네시스 미션(Bio Genesis Mission)'으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셋과 저장소를 조율하며, 바이오허브와 협력해 AI 학습용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함

- 향후 구축되는 데이터는 어떤 세포가 개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는 범용 세포 모델의 기반이 되어, 실험실 실험 중심의 연구 방식에 비해 의학적 성과의 도출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

[NIH, 2026.10.07.;PULSE 2.0, 2026.10.07.]

03 BIDMC-구글, 환자 대면 AI 챗봇 'AMIE'의 일차의료 첫 실제 환경 연구서 안전성 확인

- 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Harvard Medical School) 부속 학술의료센터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BIDMC)가 미국 빅테크(Bigtech) 기업 구글(Google)과 협력해 환자와 직접 대화하는 환자 대면 AI(Patient-Facing AI) 챗봇의 일차의료 적용을 처음으로 실제 환경에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검증함

* 연구 계획을 먼저 세운 뒤 참여자를 모집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 방식

- 해당 연구는 의료 AI 챗봇 'AMIE(Articulate Medical Intelligence Explorer)'를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는 BIDMC 의사와 긴급 일차의료 진료를 예약한 뒤 집에서 ❶텍스트 채팅으로 증상과 병력을 답하고 ❷가능한 진단을 확인하며 ❸AMIE가 작성한 진료 전 요약을 의사가 받음
-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환자 114명이 등록되어 98명이 AI 대화와 진료를 모두 마쳤으며, 모든 대화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시 개입하도록 했으나 의사가 안전을 이유로 대화를 중단시킨 사례는 없었고 환각(Hallucination)은 1건에 그침
- 환자들은 AMIE의 △경청 △설명 △안정감 부여에 높은 점수를 주고 대화 후 AI에 대한 태도도 개선되었으나 정보 기밀성과 챗봇의 정직성에는 우려를 보였으며, 의사는 진료 전 AI 요약을 검토한 44건 중 75%에서 진료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이번 연구는 임상 도입 전 AI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사례이자 △환자 △임상의 △AI가 협업하는 모델의 효과를 가릴 후속 전향적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임

[Welcome.AI, 2026.10.09.;BIDMC, 2026.10.09.]

04 유럽심장학회, 심혈관 AI 네트워크 '체인' 출범 … 20개국 53개 기관 참여

-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가 20개국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심혈관 AI 네트워크 '체인(European Cardiovascular Health Data and AI Network, CHAIN)'을 출범하여, 유럽 전역의 심혈관 진료에서 AI 도입을 가속하는 체계를 구축함
- 체인은 EU 보건 프로그램 'EU4Health'가 2,000만 유로(한화 313억 4,260만 원)를 지원해 36개월간 진행되며, △대학·연구센터 △병원 △기술기업 △보건부·환자 단체가 참여하고 심혈관 진료 데이터 등록 네트워크 '유로하트(European Unified Registries On Heart Care Evaluation and Randomised Trials, EuroHeart)*'에 참여한 18개국의 표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ESC가 운영하는 유럽 통합 심장 진료 평가·무작위 시험 등록 네트워크로, 회원국의 심혈관 진료와 치료 성과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하며 각국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진료 방식을 비교하도록 지원함

- 또한, △병원 △보건 데이터 허브 △질환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연합형 체계(Federated System)**를 EU의 보건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인 '유럽건강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과 연계해 구축하며 △성능 △안전성 △임상 적합성을 문서화한 AI 여권(AI Passport)**과 함께 검증된 AI 도구를 유럽 저장소에 제공함

** AI 도구의 △성능 △안전성 △임상 적합성을 표준 형식으로 기록해 병원과 규제 당국이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인증 문서

- 체인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 층화(Risk Stratification)*** △조기 질환 탐지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의 실제 활용 사례를 서로 다른 의료 환경에서 평가하며, 향후 3년간 AI 도입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검증된 AI 도구가 조기 진단과 맞춤 진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환자별 악화 위험을 예측해 위험이 높은 환자부터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ESC, 2026.10.07.;Healthcare in Europe, 2026.10.08.]

05 영국 정부-MHRA, AI 의료기기 전주기 모니터링 권고 수용 … AI 에어락 3단계 착수

- 영국 정부와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이 AI 규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into the Regulation of AI in Healthcare)*의 권고 44건을 수용하여, AI 의료기기의 전주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AI 에어락(AI Airlock)** 3단계에 착수함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의사들이 이끌며 MHRA가 2025년 9월 설립한 독립 비법정 자문 기구로, 의료 분야 AI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신기술을 실제 규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험 공간

- 위원회는 현행 규제가 한 시점에 평가하기 쉬운 정적 제품을 전제로 설계되어 사용 환경과 업무 흐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AI 의료기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시판 전 일회성 평가가 아닌 시판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권고함

- MHRA는 ❶2026년 12월까지 AI 의료기기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할 때의 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 초안을 내고 ❷2027년 초 AI 의료기기의 자격 기준과 분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❸2027년 봄 권고 44건의 전체 이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 AI 에어락은 시범 운영과 2단계에서 규제 과제를 시험한 뒤 정부로부터 3년간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해 시판 후 모니터링과 전주기 규제를 주제로 3단계 신청을 시작했으며, 11월 첫 참여 기업을 선정해 실제 제품으로 시험한 결과를 향후 MHRA 지침과 정책에 반영함

-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다른 규제기관도 시판 후 모니터링을 규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어, 글로벌 AI 의료기기 규제가 일회성 승인에서 전주기 감독으로 이동할 전망임

[Medical Device Network, 2026.10.06.;MedTech Dive, 2026.10.07.]

06 스위스, 제약·AI 융합으로 제약 인력의 진로가 AI 기업까지 확대

- 스위스에서 제약과 AI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제약 인력의 진로가 전통 제약사를 넘어 AI 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3년 430억 달러(한화 58조 4,370억 원)에 인수한 미국 바이오텍(Biotech) 씨젠(Seagen)의 통합에 AI를 활용했으며, 표적 발굴부터 의학적 근거 확보까지 신약 개발 전 과정의 통찰이 다음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AI 네이티브(AI-Native) 연구개발 조직 구축을 목표로 함

- 세계 주요 제약 허브인 바젤(Basel)에 이어 AI 혁신 거점으로 부상한 취리히(Zurich)에는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이 거점을 두었고, 로잔(Lausanne)에는 영국 AI 신약 개발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Isomorphic Labs)가 영국 AI 연구 기업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에서 분사해 첫 해외 사무소를 열었음

-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BMS)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과학자가 2024년 취리히 AI 스타트업 네비스 바이오(Navis Bio)를 공동 창업해 △임상시험 △특허 △논문 등 수천 건의 자료 분석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연구직 외에도 △가격·상환 △시장 접근 △고객 전략 경력자가 전문 AI 서비스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

- 제약사와 AI 기업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약 인력의 AI 분야 이동도 늘어날 전망이며, AI 인재 양성 기관을 갖춘 스위스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SWI swissinfo.ch, 2026.10.08.;MENAFN, 2026.10.08.]

07 아포덱스, 중소 바이오제약사에 AI 신약 연구 서비스 무료 제공

- 미국 AI 기업 아포덱스(Apodex)가 전문 인력과 연산 자원이 부족한 중소 바이오제약사에 자체 연구팀과 대규모 연산 자원 및 방대한 생의학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AI 신약 연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힘

- 주력 서비스인 임상시험 예측 연구소(Clinical Trial Forecasting Lab)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1차 평가변수(Primary Endpoint)*를 달성할 확률을 추정하고 근거를 설명하며, 모든 예측은 결과 공개 전에 고정한 뒤 실제 결과와 대조함

*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

-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예측은 600건 이상이며, 이 외에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제형 변경(Reformulation) △약물 상호작용 분석 △약물 안전성 평가를 제공함

- 서비스를 구동하는 연구 인프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넘어 △대규모 생의학 지식·근거 네트워크 △다단계 기전 탐색(Multi-Hop Mechanistic Search) △전문 연산 도구 △에이전틱 워크플로(Agentic Workflow)를 통합해 약물-표적-경로-질환의 기전 경로를 구축하고, △상충 근거 △안전성 △불확실성을 따져 추적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가설과 평가를 도출함

- 중소 개발사가 무료 서비스로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평가와 약물 재창출 연구에 AI를 활용할 기회가 넓어져,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의사결정에 근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임

[Newswise, 2026.10.08.;Yahoo Finance, 2026.10.09.]

08 미국 유타주, 의료 AI 규제샌드박스 확대 … 신규 파일럿·제3자 평가기관 도입

- 미국 유타주 상무부(Utah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AI 정책실(Off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OAIP)이 운영하는 AI 규제샌드박스를 의료 분야로 확대하여, 신규 파일럿과 제3자 평가기관(Third-Party Evaluator) 네트워크를 도입함

- 이번 확대는 유타주 '인간 중심 AI 이니셔티브(Pro-Human AI Initiative)*'에 신설된 의료 부문으로, △유타주 보건복지부(Uta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비영리 의료기관 인터마운틴 헬스(Intermountain Health) △대학 의료기관 유타대학교 헬스(University of Utah Health) △의사 면허 당국 △외부 전문가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

* 2025년 12월 유타주지사가 출범한 통합 AI 전략으로, ❶학계 ❷의료 ❸산업 ❹학습 ❺공공 보호 ❻주정부 ❼인력 7개 분야에서 AI를 인간이 이끌고 인간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함

- 신규 파일럿은 ❶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소재 AI 건강 동반자 앱 기업 어거스트 AI(August AI)가 만성질환 환자의 기존 처방 갱신을 면허 의사 검토 아래 보조하고 ❷뉴욕(New York) 소재 AI 헬스케어 기업 놀라 헬스(Nolla Health)가 경증~중등도 여드름의 초기 처방을 의사 감독 아래 지원하며 ❸여성 골반저 물리치료 기업 엑스펙트 피트니스(Expect Fitness)가 임산부·산후 여성에게 AI 지원 원격 치료를 제공하는 3건으로, 모두 12개월 계약으로 시작함

- 유타주 의사 면허위원회(Utah Medical Licensing Board, UMLB)는 AI 처방 갱신 시험에 우려를 제기한 뒤 의사 주도 감독 실무그룹을 구성했으며, 헬스 AI 연합(Coalition for Health AI, CHAI) 등 제3자 평가기관이 안전장치와 환자 결과를 점검하되 규제샌드박스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유타주에 있음

- 파일럿 결과는 △책임 소재 △환자 개인정보 △소비자 투명성 △면허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향후 입법에 반영될 전망이며, AI의 임상 결정 허용 범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음

[FOX 13 News Utah. 2026.10.06.;Fierce Healthcare. 2026.10.07.]

09 스탠퍼드의과대학 연구팀, 면역체계 갖춘 폐 오가노이드 개발 … 바이러스 면역반응 확인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지원을 받은 미국 스탠퍼드의과대학(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연구팀은 면역체계를 갖춘 폐 오가노이드(Organoid)*를 개발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감염 시 바이러스 면역반응을 확인한 결과를 10월 7일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함

* 환자의 조직 등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해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일부 재현한 작은 3차원 조직 모델

- 호흡기 병원체에 맞서는 신체의 초기 방어체계인 폐 점막에서 국소 면역이 맡는 역할은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스탠퍼드의과대학 연구팀은 오가노이드로 전신 면역과 분리된 폐의 국소 면역 역할을 검증함
- 연구팀은 환자의 폐 말단 부위 조직 조각을 폐의 가스 교환을 모사한 3차원 공기-액체 계면(Air-Liquid Interface) 시스템에서 오가노이드로 배양한 결과, 조직에 붙어 있는 T세포(T-Cell)의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기능이 수개월간 유지됨
- SARS-CoV-2에 감염시킨 오가노이드는 염증 등 일반 면역반응과 T세포의 바이러스 특이적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 반응을 나타냈으며, 바이러스 조각으로 백신 접종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하자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방식을 익혀 약한 정도의 감염만 일어남
- 연구팀은 이 모델을 전신 면역을 유도하는 기존 백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국소 백신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천식 △세균 감염 연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NIH, 2026.10.07.;Time News, 2026.10.14.]

10 ARPA-H, BIOGAMI 프로그램 6개 팀 선정 … 최대 1억 5,200만 달러 지원

-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은 10월 9일 'BIOGAMI(BIOmolecular Grammar for protein Aggregation Modulation and Intervention)' 프로그램을 수행할 6개 팀을 선정해, 4년간 최대 1억 5,200만 달러(한화 2,065억 6,8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힘
- BIOGAMI 프로그램은 단백질이 잘못 접히기 시작해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 단계에 개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단계에서 단백질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등 신경퇴행성 질환 대상 진단·치료 솔루션 설계에 적용함
- 지금까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후에 증상을 치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경퇴행성 질환과 다른 만성질환을 완전히 발병하기 전 단계에서 막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선정된 6개 팀은 본질적 무질서 단백질(Intrinsically Disordered Proteins, IDPs)*이 모양을 바꾸는 규칙을 해독하여 △조기 검출 기능 △잘못 접힌 단백질의 교정 기술을 위한 실험 및 전산 도구 모음을 만듦

* 모양이 바뀌는 유연한 부위를 지닌 단백질로, 노화 등에 따라 잘못 접히거나 뭉치면 세포를 손상시킴

- 연구 대상 질환은 △타우(Tau) 단백질 질환** △알파-시누클레인(Alpha-Synuclein) 단백질 질환*** △유잉육종**** △특발성폐섬유증*****이며, 이 연구는 암·당뇨병 등 단백질이 잘못 접히는 다른 질환에 개발 중인 기술을 넓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됨

** 타우 단백질이 신경계에 비정상적으로 쌓여 생기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등이 해당됨
***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신경계에 비정상적으로 쌓여 생기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등이 해당됨
**** 뼈 또는 그 주변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 암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나타남
*****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폐 조직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굳어지는 만성 폐질환

[ARPA-H. 2026.10.09.;AllSci. 2026.10.13.]

11 MHRA, 악성 복수 치료제 '코르주니' 허가 … 배액 시술 간격 연장

-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10월 7일 악성 복수 치료제 '코르주니(Korjuny)'를 허가했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치료제를 통해 암의 표준 치료를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운 성인 환자의 배액 시술 간격을 연장할 수 있음

- 악성 복수 환자는 △복부 팽만 △불편감 △호흡곤란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체액을 빼내는 배액 시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코르주니는 상피세포부착분자(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EpCAM)*에 결합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단일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로, 체액만 빼내는 배액 시술과 달리 복수 속 암세포 파괴를 유도해 다음 배액 시술까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복수 속 암세포를 포함한 일부 암세포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코르주니가 결합하는 표적을 뜻함

- 항암화학요법을 쓸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EpCAM 양성 악성 복수 환자 258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배액 시술 후 코르주니를 투여한 환자는 추가 배액 시술 없이 지낸 기간이 약 46일로 시술만 받은 환자의 11일보다 길게 나타남

-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복통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 CRS)** 등이 있으며, MHRA는 의료진과 환자가 '옐로 카드 제도(Yellow Card Scheme)'를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계속 점검할 방침임

**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뜻함

[GOV.UK, 2026.10.07.;National Health Executive, 2026.10.08.]

12 온바구스, 암 악액질 환자 대상 비침습 미주신경 자극 기기 첫 임상시험 착수

- 미국 의료기기 기업 온바구스(OnVagus)가 기관 및 규제 승인을 받아, 암 악액질(Cachexia)*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를 통한 비침습 전기 자극으로 미주신경(Vagus Nerve)을 조절하는 기기의 첫 임상시험에 착수함

* 영양 섭취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체중과 근육의 비자발적 감소가 진행되는 증후군으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 항암화학요법의 지속 기간을 제한하며 암 사망의 최대 절반의 원인이 됨

- 2025년 국제 생명과학 학술지 셀(Cell)에 발표된 전임상 연구에서 미주신경을 조절하는 접근법과 기본 작용 기전이 설명되었으며, 해당 기기는 수술이나 이식 없이 이 경로를 조절하는 인체용 최초의 경피 미주신경 차단 기기로 소개됨

- 10월 중 첫 환자 등록이 예상되는 이 시험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췌장암 악액질 환자 10명 규모로 8주간 진행되며, 안전성과 사용성을 중점 평가하고 증상 완화와 간 기능 등 바이오마커(Biomarker) 변화도 함께 측정함

- 안전성 시험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을 경우,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모조 기기(Sham Device)와 비교하는 무작위 이중맹검(Double-Blind) 임상시험을 이어갈 계획이며 항암화학요법 지속 기간 연장과 악액질로 인한 체중 감소 완화를 합한 복합 지표를 중점 평가할 예정임

- 이어지는 후속 시험까지 성공할 경우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항암치료 중 체력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고 생존 기간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News-Medical, 2026.10.07.;Bioengineer.org, 2026.10.10.]

13 글로벌 일회용 의료기기 시장, 2030년 1,448억 5,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Markets)는 10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일회용 의료기기 시장이 2025년 1,139억 5,000만 달러(한화 154조 8,581억 원)에서 2030년 1,448억 5,000만 달러(한화 196조 8,512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마켓츠앤마켓츠는 △감염 예방 및 교차오염 관리 강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고령화 △수술 건수 증가를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장기요양과 재택의료 등의 확산으로 일회용 제품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힘
- 제품 유형별로는 프리필드 시린지(Prefilled Syringe)* 도입이 늘어나는 약물 전달 기기(Drug Delivery Devices)가, 용도별로는 웨어러블 바이오센서(Wearable Biosensor) 수요가 늘어나는 진단·모니터링 기기가 각각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 단계에서 약물을 미리 채워 두어 약병에서 따로 덜어 담지 않고 바로 주사할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

- 북미가 지역별 2024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이용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으로 관측됨
- 멸균 및 재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재사용 기기의 매력이 커지고 의료 폐기물을 둘러싼 환경 우려와 규제적 감시가 이어지면서, 제조사는 재활용 가능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 및 바이오 기반 소재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Yahoo Finance, 2026.10.05.;Medical Buyer, 2026.10.06.]

14 미국 의료기기산업협회, CMS에 RAPID 보장 경로 적용 대상 확대 요구

- 미국 의료기기산업협회(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AdvaMed)는 10월 8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제안한 '예측 가능하고 즉각적인 기기 보장을 위한 규제 조정(Regulatory Alignment for Predictable and Immediate Device coverage, RAPID)*' 절차 공고안에 혁신 의료기기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혁신 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는 시점에 CMS가 해당 기기의 사용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지급할지 전국 단위로 정하는 전국 보험 적용 결정안(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NCD) 제안안을 내놓도록 하는 제도

- CMS는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의 허가를 받은 혁신 의료기기에 4년간 메디케어 보험을 자동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메디케어 대상 임상 근거를 둘러싼 우려로 철회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매년 신규 혁신 기술 5개를 보장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음
- AdvaMed 최고경영자는 2026년 발표된 RAPID에 대해 혁신 의료기기 접근 확대를 향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으며, FDA 허가를 받은 혁신 기술을 메디케어 가입자가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CMS가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s Device, IVD)를 메디케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일부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국 보험 적용 결정안(NCD)의 처리 기한 명시와 기존 CMS 보험 적용 경로로 개발·계획된 기술에 대한 이행 보호 조치 및 충분한 재원 배정을 요청함
- CMS가 RAPID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 의료기기는 현재 40개이나 향후 약 20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에서 제시된 요구의 반영 여부에 따라 적용 규모가 달라질 예정임

[AdvaMed. 2026.10.08.;MedTech Dive. 2026.10.09.]

15 NMPA,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 시행 공고 … 등록·신고 제품 변경 절차 규정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10월 8일「화장품안전기술규범(Safety and Technical Standards for Cosmetics, STSC)」 개정 시행 공고를 발표해, 이미 등록 및 신고된 화장품의 변경 절차와 심사 중인 특수화장품* 및 신청 예정 제품의 대응 방식을 규정함

* △염모 △펌(Perm)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효능 제품과 새로운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으로, 일반 화장품이 신고 대상인 것과 달리 NMPA의 기술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화장품군을 뜻함

- 이번 개정은 △화장품 배합 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원료와 허용된 원료 목록 △미생물 및 유해물질 한도 △검사방법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정이 필요한 등록 및 신고 제품은 개정 시행 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원료 목록 조정에 따른 기등록·신고 제품의 변경 신청과 심사 중인 특수화장품의 보충자료 제출에는 ❶용매·충전제 등 기질 원료로의 대체 또는 사용량 감소는 안전성 평가 ❷향료 변경은 안전성 평가와 중국 국가표준 또는 국제향료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IFRA) 표준 부합 증빙 ❸그 밖의 원료 조정은 등록·신고 검사와 안전성 평가가 필요함

- 등록인 및 신고인은 기등록·신고 제품을 개정된 미생물 및 유해물질 한도와 검사방법에 맞추어 자체 점검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 표준만 갱신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생산공정 조정과 재검사를 거쳐야 함

- NMPA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STSC)」 개정 내용 시행 전에 등록·신고 검사를 진행한 제품의 검사 보고서를 이후 등록·신고 신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괄 재검사 대신 변경 유형별 요건을 두어, 기업별 대응 부담은 원료 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ion, 2026.10.08.;ZMUni Compliance Centre, 2026.10.09.]

16 두바이 시청, AI 기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공개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 DM)은 10월 6일~8일에 열린 '뷰티월드 두바이 2026(Beautyworld Dubai 2026)'에 참가해, △제품 시험 및 등록 △수입 화물 통관 △시장 감시로 구성된 AI 기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공개함

- 두바이 시청(DM)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제품·기술의 변화에 맞춰 규제 방식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박람회 부스에서 투자자 및 전문가와 패널 세션을 열어 화장품·퍼스널케어(Personal Care) 분야의 규제 요건과 기술 표준 및 모범 사례와 함께 규제 준수를 높일 디지털·AI 기반 방안을 다룸

- 또한, 소비자 제품 안전 서비스를 AI 기반 통합 체계로 전환했으며 △제품 등록 절차 간소화 △거래 처리 속도 향상 △투자자 이용 과정 효율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힘

- 두바이중앙시험소(Dubai Central Laboratory)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부적합 성분을 조기에 탐지하며, 박람회에서는 첨단 분석 기술로 유해 화학물질을 검출하여 결과 확인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규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험 방법을 선보임

- 두바이 시청(DM)은 △현장 점검 △시험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소비자 제품 안전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업계의 품질 및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제 준수 지원을 이어갈 방침임

[Zawya. 2026.10.06.;Dubai PR Network. 2026.10.06.]

17 닥투어스 헬스, 글로벌 의료서비스 비교·예약 플랫폼 확대 추진 … 200만 달러 투자 유치

- 미국 헬스테크 스타트업 닥투어스 헬스(Doctours Health)가 글로벌 의료서비스 비교·예약 플랫폼 확대를 위해 200만 달러(한화 27억 1,800만 원) 규모의 프리시드(Pre-Seed) 투자*를 유치함

*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제품이나 매출을 만들기 전, 아이디어와 창업팀만 있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받는 첫 외부 자금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Draper Associates)와 벤처펀드(Venture Fund) 런치(LAUNCH)가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미국인들에게 자국과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비교 △예약 △조율 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투명한 사전 비용 공개 △신뢰할 수 있는 클리닉 검증 △미국 기반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 △치료비 금융 지원 △왕복 여행 지원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플랫폼 제공 등을 지원함
- 주요 서비스는 미국과 글로벌 의료기관의 비용 차이가 크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모발 이식 분야부터 제공하며, 현재 패키지 가격은 2,200달러(한화 298만 9,800원)에서 8,690달러(한화 1,180만 9,710원) 수준으로 책정됨
- 네트워크 관련 모든 클리닉은 직접 방문과 자격 검증이 요구되며, 이스탄불(Istanbul) 내 파트너 클리닉 5곳은 튀르키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글로벌 의료관광 인증을 보유함
- 투자금은 AI 기반 환자 코디네이션 플랫폼 고도화 및 검증된 클리닉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불임치료 등 비응급 선택 진료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Pulse 2.0, 2026.10.07.;Hospitals & Healthcare Management, 2026.10.08.]

18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국가 원격의료 서비스 '이산지바니' 누적 상담 5억 건 돌파 발표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MoHFW)가 국가 원격의료 서비스 이산지바니(eSanjeevani)의 누적 원격상담 건수가 5억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 원격의료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의료 접근성 △비용 부담 완화 △의료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COVID-19 팬데믹 동안 주목받게 됨
- 현재 △인도 아유시만 아로기아 만디르(Ayushman Arogya Mandir) 연계 거점 14만 2,000여 개 △의료 허브 1만 9,473개 △온라인 외래 진료과(Outpatient Department, OPD) 901개를 지원하며, 등록된 의료인은 24만 1,923명임
- 또한, 영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제공되어 하루 평균 25만 건~30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최대 단일일 이용 건수는 63만 315건을 기록함
- 여성이 전체 이용자의 57.14%, 46세 이상 고령층이 40.15%를 차지했으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은 16.25%에 해당함
- 인도는 최근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I-CDSS) 통합 및 응급대응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했으며, 주요 국립병원에서 전문의 원격 외래진료 개시 등 전문 진료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음

[Hindustan Times, 2026.10.06.;Chronicle India, 2026.10.06.]

19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 2025년 의료관광 수익 23% 증가 발표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2025년 의료관광객 매출이 33억 5,000만 링깃(한화 1조 1,195억 원)으로, 전년 27억 2,000만 링깃(한화 9,090억 2,400만 원) 대비 23% 증가했다고 발표함
- 「2026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의 해(Malaysia Year of Medical Tourism 2026)」 캠페인을 통해 △전문 치료 △회복 △장기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불임치료 △심장학 △종양학 등 전문 분야로 성장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체외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등 불임치료는 다수의 △상담 △검사 △시술로 진행되며, 환자들이 비용보다 전문성과 임상 실적을 기준으로 클리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유망 분야로 평가됨
- 실제로 말레이시아 불임치료 전문기업 알파 IVF 그룹(Alpha IVF Group)은 2026 회계연도 외국인 환자 매출이 1억 2,010만 링깃(한화 401억 3,7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및 전체 매출 1억 7,880만 링깃(한화 597억 5,496만 원)의 약 67%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내 운영 거점 △인도네시아 내 위성 클리닉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두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 그룹 전체 매출은 1억 9,860만 링깃(한화 663억 7,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함
- 또한, 2027 회계연도까지 4개 센터를 추가 개소 등 총 10개 정식 체외수정(IVF)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증권사 TA 리서치(TA Research)는 2027 회계연도 순이익이 6,540만 링깃(한화 218억 5,668만 원)으로 2026 회계연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Moomoo, 2026.10.10.;I3investor, 2026.10.10.]

20 필리핀 관광부, 의료·웰니스 관광 투자 유치에 나서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 필리핀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 DOT)는 10월 9일 열린 제15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에서 △기업인 △투자자 △정책입안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자국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를 요청함
- 또한, 의료·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 △의료 △숙박 △인프라 △기술 등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의료시설 △진단 △디지털헬스 △재활 △웰니스 △숙박 △장기체류 커뮤니티 등 전 분야의 투자 가능성 검토를 제안함
- 의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의료 지원 서비스 간 공백 감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GWI)에 따르면 필리핀의 웰니스 경제 규모는 2024년 473억 달러(한화 64조 2,807억 원)로 세계 23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8위를 기록했으며, 관광부(DOT)는 이를 기반으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제3터미널에 의료 컨시어지 라운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설함
- 현재 △병원 13곳 △외래 클리닉 21곳 △치과 클리닉 10곳 △스파 63곳 등 인증 네트워크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Great Travel Philippines, 2026.10.12.;Daily Tribune, 2026.10.12.]

21 글로벌 사모펀드, 인도 병원 그룹에 투자 확대하며 중소도시 확장 지원

- △블랙스톤(Blackstone) △칼라일(Carlyle)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ohlberg Kravis Roberts & Co., 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들이 인도 병원 그룹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중소형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블랙스톤이 투자한 인도 병원 그룹 애스터 디엠 퀄리티 케어(Aster DM Quality Care)는 현재 39개 병원과 1만 병상 이상을 운영 중이며, 향후 3년~4년간 소외 지역 중심으로 병상 5,000개를 확충할 계획임
- 인도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공공의료 지출이 1.5% 미만이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약 240만 개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민간 부문이 전체 입원의 약 60%, 외래진료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사모펀드(PEF) 및 벤처캐피탈(VC)이 145억 달러(한화 19조 7,055억 원)를 투자함
-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지난 8월 인도 병원 그룹 메디커버 인디아(Medicover India)의 약 5,000병상 규모 병원 사업을 14억 달러(한화 1조 9,026억 원)에 전액 인수하겠다고 발표함
- 인도 신용평가사 ICRA(Investment Information and Credit Rating Agency of India)는 18개 주요 병원 그룹이 향후 4년간 4,000억 루피(한화 5조 7,000억 원)를 투입해 병상 3만 4,000개 이상을 추가하고 이 중 40%를 중소형 도시에 배정할 것으로 추정함
- 다만 지난 8월 발표된 인도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 1박 평균 입원비가 530달러(한화 72만 207원)로 공공병원 70달러(한화 9만 5,130원)의 7배 이상 높았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과 '무분별한 기업 인수(Predatory Corporate Buyouts)' 규제 도입을 권고함

[Financial Times, 2026.10.11.;AlphaMaven, 2026.10.11.]

22 스웨덴 엔케어, 베트남 FV 병원과 파트너십 체결 … ERAS® 인증 추진

- 스웨덴 의료기술 기업 엔케어(Encare AB)는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 내 FV 병원(FV Hospital)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첫 협력 병원으로 선정함
- 양측은 수술 후 빠른 회복(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프로그램을 ❶대장항문 수술 ❷고관절·슬관절 치환술(Hip and Knee Replacement) 등 두 개의 수술 경로에 도입하기로 함

* 수술 전후 과정을 표준화된 근거 기반 프로토콜로 관리해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수술 치료 경로

- 병원 임상팀은 ERAS® 학회(ERAS® Society) 지정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ERAS® 실행 프로그램(ERAS® Implementation Program, EIP)에 참여 및 엔케어의 ERAS® 대화형 감사 시스템(ERAS® Interactive Audit System, EIAS) 활용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환자 치료 결과를 모니터링함
- 따라서 임상 개선점을 파악하고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의 일관 적용을 통해 수술 결과 향상을 목표로 함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엔케어의 글로벌 확장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였으며 FV 병원은 ERAS® 도입이 환자에게 의료 우수성 제공의 병원 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함
- 협력을 계기로 엔케어의 EIAS 도입 병원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 2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ERAS®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임

[finchannel, 2026.10.07.;Cision, 2026.10.07.]

23 말레이시아 마이클리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지점 개설

- 2014년 설립된 이후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에 △28개 이상의 지점 △100만 건 이상의 시술 실적 △환자 만족도 95%를 보유한 미용의료 전문기업 마이클리닉(MyClinic)이 10월 10일 인도네시아 첫 지점인 마이클리닉 자카르타(MyClinic Jakarta)를 개설함
- 인도네시아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산업투자 담당 차관은 개소식에서 말레이시아 방문객의 웰니스 및 뷰티 소비 확대와 인도네시아인의 국내 시술 전환 기대 등 향후 타 도시 확장을 기대함
- 마이클리닉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시술을 받아온 인도네시아 고객과 현지 거주 인도네시아인 고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결정했으며, 창업자는 12년간 축적되어온 △경험 △의료 기준 △서비스 철학을 마이클리닉 자카르타에 적용할 계획임
- 현지 운영법인 PT 클리니쿠 숙세스 시너지(PT Kliniku Sukses Sinergy) 임원은 남자카르타의 미용의료 수요 다양화 및 지속 성장하는 지역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첫 진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함
- 마이클리닉은 다수의 시술 경험으로 개발한 자체 진료 방법론 '마이클리닉 메서드(MyClinic Method)'를 통해 시술 전 △피부 상태 △얼굴 구조 △시술 적합성 △제품 선택 등 평가로, 개별적인 환자에게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함
- 또한, '변형이 아닌 개선(Enhance, not alter)'이라는 원칙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며 향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원스톱 미용의료 목적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Independent Observer, 2026.10.10.;Suara Karya, 2026.10.12.]

24 중국, 중의학 국제협력 확대 … 2026 세계전통의학대회 베이징 개최

-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부국장은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이 전 세계 196개국·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외국 정부 △지역 당국 △국제기구 등과 약 50건의 중의학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함
- 중국은 현재 해외에 질 높은 중의학센터 30곳과 국가급 중의학 서비스 수출 거점 31곳을 구축해 △의료서비스 △인력양성 △과학연구 △문화교류 수행 및 캄보디아에는 5회에 걸쳐 중의학 해외원조팀을 파견해 현지 주민에게 진료를 제공함
- 또한, 전통의학 관련 글로벌 규칙 및 표준 제정과 교류 플랫폼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0월 17일~18일 베이징(Beijing)에서 '2026 세계전통의학대회(2026 World Conference on Traditional Medicine)'를 개최함
- 주요 내용으로 '기술 역량 강화와 융합 발전: 모두를 위한 전통의학 발전(Technology Empowerment and Integrated Development: Advancing Traditional Medicine for All)'을 주제로 △AI 등 신기술이 전통의학 혁신에 미치는 역할 △만성질환·급성 감염병 등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따라서 중국이 중의학(TCM)을 글로벌 공중보건 협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글로벌 표준 수립과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됨

[China Dailv. 2026.10.10.;CGTN. 2026.10.18.]



글로벌 헬스 전시회 2026

Global Health Exhibition 2026

개최도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행사일정 2026.10.26.~2026.10.29.

행사주제 헬스케어에 투자하라

주요내용 중동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로 △임상·의료 전문가 포럼 △리더스 서밋 △디지털헬스 포럼 △투자 포럼 등 4개 콘퍼런스 스테이지와 스타트업 피칭 및 투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



미국공중보건협회 연례 회의 및 박람회 2026

APHA Annual Meeting & Expo 2026

개최도시 미국 샌안토니오

행사일정 2026.11.01.~2026.11.04.

행사주제 함께 하는 인생: 끝까지 건강하게

주요내용 미국공중보건협회(APHA)가 주관하는 연간 최대 공중보건 행사로, 전 세계 11,000명의 공중보건 전문가가 참가해 △공중보건 정책 △형평성 △지역사회 건강 △예방의학 등 핵심 현안 논의



헬스 USA 2026

HLTH USA 2026

개최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

행사일정 2026.11.15.~2026.11.18.

행사주제 지능형 헬스케어의 시대가 열리다

주요내용 12,250명 이상이 참가하는 헬스케어 혁신 최대 연례 행사로,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 헬스케어 전 분야가 모여 전문 분야별 서밋 운영



메디카 2026

MEDICA 2026

개최도시 독일 뒤셀도르프

행사일정 2026.11.16.~2026.11.19.

행사주제 의료와 미래, 사람이 만나는 곳

주요내용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전시회로, 160개국 78,000명이 참가해 △의료영상 △진단 △디지털헬스 △실험실 장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 전체가 집결하는 플랫폼



퀄리파이드 퍼슨 포럼 2026

Qualified Person Forum 2026

개최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행사일정 2026.11.26.~2026.11.27.

행사주제 전환점의 QP - 책임과 개혁, 미래를 향한 준비

주요내용 유럽 QP협회(EQPA)가 주관하는 QP 전문 국제 포럼으로, EMA·FDA 및 각국 규제기관 대표가 참가해 △GMP 규제 동향 △AI의 품질 전환 △GxP 준수 전략 등 QP의 실무 현안 논의